광주시, 32개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조직진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 쇄신

강 시장 "변화의 길 찾아야"

광주시가 산하 32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기능 효율화 용역을 수행할 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다음달 중순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월말께 계약 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간은 6개월, 대상 기관은 32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할 평가위원 후보자도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1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다. 조직진단 대상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 등 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공사·공단 4곳, 광주전남연구원·테크노파크 등 출연 기관 19곳, 5·18 기념재단·체육회 등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형태의 기타 기관 9곳이다.

용역에서는 기관별로 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과 함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통합 매뉴얼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유사·중복 기능 조정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통폐합 등 공공기관 구조 조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 공공성·효율성·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높아진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으로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관행적인 위·수탁 사업 중 일부의 경쟁 방식 전환 ▲인사·보수·회계 등 공통 표준지침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규정 정비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길용현 기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사진 왼쪽)가 1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과 도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전남도와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김정희 전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30여곳에 총 5억4,000만원을 지원해 센터 리모델링과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아동권리 증진활동에 필요한 공동사업 홍보와 참여모집 등을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지난해에도 도내 31곳에 5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임채민 기자

전남도, 내년 예산 '국회 증액' 시동

23일까지 중앙부처 총력전

현안사업 등 추가 반영 주력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9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10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국고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국장들은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예산실국장 면담, 국회 지도부 면담 등 지속적 노력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2,00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중성입자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파속 채소연구소 구축 ▲수출용 수산물 급속 동결 시스템 구축 등이다.

증액 건의하고 있는 주요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건의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대

보성·영암 농업법인 2곳

시설·장비 등 10억 지원

전남도는 19일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로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 영암 농업회사법인 ㈜담아를 선정,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은 친환경 벼 10ha(벼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말까지 시군에서 사업희망자를 추천받아 사업계획 적정성과 생산·유통 계획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앞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협력해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가공·유통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올해까지 총 39곳(생산시설 6·가공시설 23·유통시설 9·교육장 1)에 203억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기반을 확대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등 다양한 품목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유기농·무농약)은 전국의 54%, 유기농산물은 전국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SR고속철도 실내 공기질 측정 '꼼수'

조오섭 "수치 맞추기 전략"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철도 내부 공기 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년 14차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했다.

이 가운데 7차례만 토·일요일에 측정했는데 평균 탑승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새벽이나 늦은 밤 탑승 시간대에 측정했다.

2021년 역시 8차례 측정 가운데 2차례만 토·일요일에 진행됐고 이마저도 새벽과 늦은 밤 시간에 운행된 철도였다.

도시철도와 달리 일반철도의 경우 혼잡시간대를 요일로만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SR의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 역시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보다 매우 낮았다.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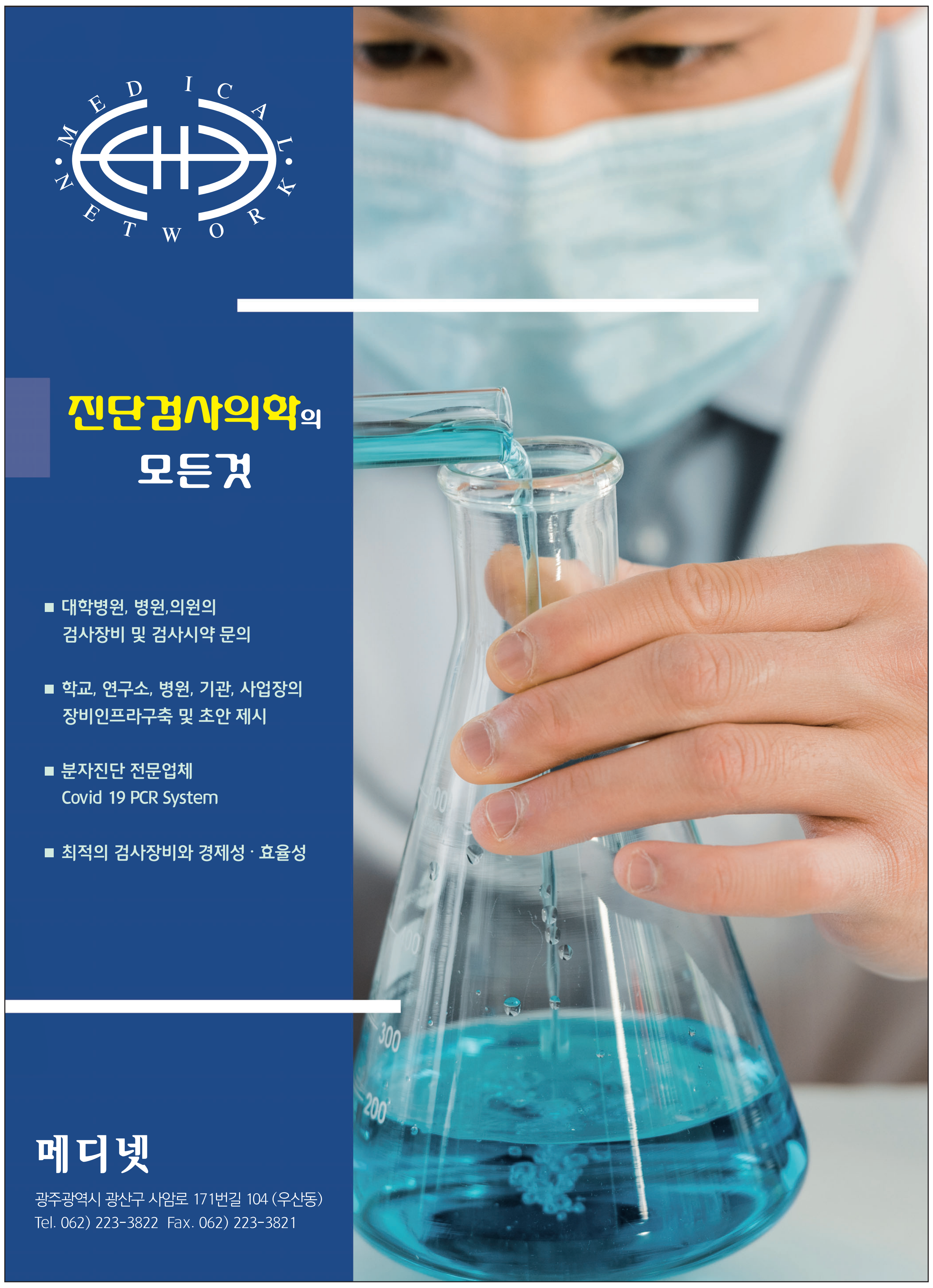
광주평생학습박람회 23~24일 개최

제7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내일을 채우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행사로는 ▲어르신들의 골든벨을 향한 도전 '문해골든벨' ▲아름다운 플룻 선율과 함께 듣는 평생학습 강연 '렉처콘서트' ▲한밤의 영화제 ▲지속가능발전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부스·전시·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23일 오후 2시부터는 문해골든벨 퀴즈대회가 열리고 오후5시부터 강명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비스타 공연팀 초청공연과 함께 평생학습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개막행사가 진행된다.

야간행사로는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화제가 열린다. 모기장 텐트 안에서 팝콘과 함께 즐기는 한밤의 피크닉으로 흥행 영화를 감상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치구, 교육청, 민간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한방꽃차, 핸드드립, 반려동물 수제간식,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 50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